

# 정의와 평화의 순례(The Pilgrim Of Justice and Peace) - 평화로(함께) 걷다(Walking with peace)

- **일시** : 2019년 8월 6-12일(6박 7일)
- **장소** : 광주, 노근리, 그리고 파주
- **배경**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후, 한반도가 분단된 지 65년이다. 남북-북남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는 그동안 없었고, 정부와 일부 민간차원의 교류는 있었지만, 사실상 남한은 섬처럼 고립된 채로, 북한은 여러 재제와 통상압력으로 섬처럼 존재해왔다. 정부주도의 남북 협력은 정부의 성격이 바뀌면서, 약 10년 동안 그마저 있었던 교류와 협력사업도 사라졌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급속도로 남북-북남 간 관계 개선과 협력사업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다시 시작에 불과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상태이다.

남북-북남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은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왜곡된 북한의 정보에 노출되고, 혐오와 적대만을 강제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 20-30대 청년들에게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문제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북한은 공포의 대상이며, 항시 남한을 위협하는 대상이기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하더라도, 이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경제적 공포 그리고 미래의 골칫덩이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 '평화' 그리고 '공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반도 안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없다.

2013년 WCC 부산총회 이후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년(2019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세계 기독교청년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한반도의 정의·평화에 대한 이슈를 나누고, 각국의 평화이슈도 나누며,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더 이상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하는 이슈임을 깨닫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 · 취지

그동안 통일의 명분이 되었던, “민족”이라는 당위성은 20-30대 청년들이 아무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20-30대 청년들에게 통일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현재 청년들은 N포세대로 칭하며, 경제생활에 진입장벽이 높은 현실의 삶이 청년들에게 녹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앞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통일교육, 역사교육, 그리고 평화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구분해낼 눈을 갖지 못하거나, 거대담론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20, 30대 각각 7%, 14%로 나왔다.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 또한 북한 제대로 바라볼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북남의 당사자 문제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문제임을 깨닫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냉전시대의 갈등이 남북-

북남의 이념대결로 이어져 한국전쟁으로, 분단폭력과 이념사냥으로, 이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 순례는, WCC프로그램-정의와 평화의 순례(PJP)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숨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그리스도의 역할, 특히 기독교청년의 역할 고민하고 앞으로 방향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스도의 한국의 역사와 함께, 전쟁 없는 평화의 중요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직접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더불어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은 물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성을 체감하는 첫 출발점이 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청년으로서 화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 목적

- 1)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출발점임을 세계 청년과 함께 깨닫기
- 2) 한국전쟁과 더불어 전쟁 이후 이념사냥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화해의 필요성과 생명존귀를 깨닫기
- 3) 평화의 감수성을 느끼고, 평화의 문제를 세계 기독교청년들이 어떻게 함께 연대해 갈지 고민하기
- 4) 평화를 이룩하는 다음 세대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들의 역량 강화하기
- 5) 한국기독교청년과 세계기독교청년들과의 친교 그리고 각 나라의 중요한 평화이슈 나누기

## · 주최/주관

- 주최 : WCC(세계교회협의회), NCKK 화해통일위원회
- 주관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 · 대상 (총 90명)

- 한국 : 만 18-39세, 기독교청년 45명(NCKK 가맹교단, 회원교단, EYCK)
- 세계 : 만 18-39세, 기독교청년 45명

## · 모집기간

2019년 6월 까지

## · 일정(뒷면 참고)

- 6박 7일 (한국 참가자들은 5박 6일, 7-12일)

## · 프로그램 설명

### 1. 5·18광주와 한반도 평화

1980년 5월 18일,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독재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저항한 운동이다. 이후로, 광주시민들은 폭도, 빨갱이, 북에서 온 간첩으로 몰려, 공수부대에 의해서 진압 더 나아가 학살당했다. 분단된 한반도와 냉전시대의 논리로, 광주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고, 사찰, 간첩조작사건, 이

념논리로 한반도평화를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2. 노근리양민학살사건과 한반도 평화

195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피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200여명 이상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축소판으로,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서 3년 동안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전장에서 보다 특별히 민간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계급갈등은 물론이고, 이웃과 이웃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갈등이 첨예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생겨나고 현재까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 3. DMZ와 한반도 평화

남북-북남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민간인통제지역이며, 철조망으로 막혀있다.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한반도가 전쟁 중이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고, 다양한 생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 긴장이 심한 곳에 다양한 생명들이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다. DMZ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4. 침묵과 함께 걷기(순례)

아픔의 현장을 침묵으로 걷는다. 주변 현장을 걸으면서, 그곳의 숨결과 역사적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당시 갈등의 현장을 느끼면서, 부정의와 갈등이 있는 곳에 어떻게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행동해야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걸기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가 곧 평화를 이룩하는 첫 시작이며,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시작임을 몸소 느끼는 과정이다.

일정/ 시간	8/6(화)	8/7(수)	8/8(목)	8/9(금)	8/10(토)	8/11(일)	8/12(월)
07:00-08:00	도착	출발(광주)	기상				
08:00-09:00		이동 (아침은 출발하면서)	아침식사				
09:00-10:00			5.18 유적지 순례	노근리공원 순례	이동	서대문형무소 방문	<워크샵> 한반도(세계) 평화와 나
10:00-11:00					DMZ 순례		
11:00-12:00					점심		
12:00-13:00		점심		점심	점심식사		
13:00-14:00		5.18 유적지 순례	대전 산내골령골 방문	세계평화와 기독교청년 (각 나라 별 평화이슈 발표)	DMZ 순례	815 남북공동주간 예배	집으로
14:00-15:00							
15:00-16:00			숙소로		이동(서울로)	자유시간	
16:00-17:00		숙소로	노근리 공원 돌러보기	이동(서울로)	자유시간		
17:00-18:00						여는 예배 및 환영만찬	
18:00-19:00		공지사항 전달	공동체놀이 및 오리엔테이션	민간인 학살과 기독교 (강의)	평화이슈 나눔		
19:00-20:00						취침	
20:00-21:00		취침	취침	숙소로	취침		
21:00-22:00	취침					취침	
22:00-		지역	서울	광주/노근리	노근리/서울		
지역	서울					광주/노근리	